

전북도립국악원, 2017 주요업무 계획

# 전통예술 창작활동 · 국악공연 활성화

공연 통한 고품격 작품세계 구축  
세대공감 공격적 예술마케팅  
지자체 연계 문화소외계층 지원  
지역소재 작품개발 세미나도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은 올 한해 전통예술의 창작활동 및 국악공연을 활성화 해 공공예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악원은 '전통예술의 미래와 문화복지의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 정기·기획공연을 통한 고품격의 다양한 작품세계 구축 ▲ 세대가 공감하는 레퍼토리가 발 및 공격적 예술마케팅 ▲ 지자체·공공기관·대기업 등과 연계한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국악원의 공연을 견인하고 있는 예술단은 전통과 현대·시대의 지역을 넘나드는 정기공연 등 다양한 작품을 제작해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창극단(단장 조봉달)은 조선시대 풍자문학의 대표작인 '배비장전'을, 무용단(단장 김수현)은 동아시아 해상무역 중심에서 주변국과 교류를 통해 문화를 꽃피운 백제를 답사한 '가온누리비·리지'를, 관현악단(단장 조용안)은 판소리 다섯 바탕의 관현악 연주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 첫 번째 장으로 적벽가를 작·편곡한 '나래'를, '적벽'을 각기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기획공연인 '창극 놀보연'을 비롯해 무용단의 '왕의 순행', 관현악단의 '국악관현악'은 각 지역에서 순회공연을 이어간다. 국악원 예술단별 레퍼토리로 구성된



목요국악예술무대는 '어우름'을 주제로 총 15회의 공연을 갖는다. 이와 함께 특별기획 공연으로는 2월 '정월대보름공연', 3월 '신춘음악회', 6월 '청소년·대학생협연', 12월 '송년국악큰잔치'를 마련해 국악의 향기를 전한다. 전북도교육청·완주문화재단·기업이 공동 주최하는 7월 '한여름밤의 예술축제'에는 문화소외지역 청소년 500여 명을 초청해 공연 및 전북 대표관광지를 관람 할 기회를 제공한다.

국악원은 문화복지 사업 발굴에도 행정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소규모 공연단이 복지시설, 학교, 기관 및 단체 등 문화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확대한다. 또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 창단을 지자체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현장체험 학습 수요증가에 맞춰 국악체험학습도 확대 실시한다. 여기에는 악기전시실 견학과

국악체험학습에 더하여 예술단 연습현장 및 무대제작 공간 견학이 함께 진행된다. 국악원은 인물·설화·민속놀이 등 지역 소재 작품개발을 위한 학술 세미나도 열어 전북민속예술을 무대로 구현해 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악원 체험전수관(연습실)을 2018년 완공하기 위해 토지매입 및 설계 용역 등 기반을 조성하고 예술단원 충원을 통해 조직운영을 활성화 한다는 구상이다. /정해은 기자

전주영화제작소, 편집 기초 교육프로그램 진행

전주영화제작소는 현지 편집기사가 강의하는 편집 기초 교육프로그램을 2월 진행한다.

최현숙 교육강사는 영화 <한공주>의 드라마 대물, 대공수, 닥터진과 장편영화 장화홍련, 실미도, 형사, M, 청춘그루브 등 다수의 작품에서 편집활동을 했다.

영화 및 영상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는 촬영, 편집, 색보정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2월 11일~19일까지 주말동안 열리는 이번 강좌는 영상제작과 편집에 대한 이론 수업과 함께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현숙 강사와 함께 Mac기반의 Final Cut Pro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미 개봉된 독립 장편영화 <한공주> 대화선의 클립영상을 교육생들이 직접 재편집할 예정이다.

수강생은 선착순 모집이며 교육 참가신청은 오는 18일~31일 오후 5시까지 E-mail(cineplex@jiff.or.kr)로 하면 된다.

\*문의 전주영화제작소 교육사업담당 063-282-1400. /정해은 기자

## “냥이와 함께하는 삶, 그것은 철학”

신간도서 · 진중권 '고로 나는 존재하는 고양이'

'모두가기 인형'으로 통하며 냉철한 시선으로 사회를 꿰뚫어보는 인문학자 진중권(54) 동양대 교수는 2013년 점차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그해 비 오는 어느 날 '냥줍'(길에 버려진 고양이를 주워오는 것) 이후 새사람 '진 집사'로 거듭나기를 자랑하던 그가 어느새 고양이와 짝은 사진을 트위터 때문에 걸어들 정도가 됐다.

그의 반려묘의 이름은 '루비', 진중권이 존경하는 철학자 루트비히 요제프 요한 비트겐슈타인(Ludwig Josef Johann Wittgenstein)에서 따왔다.

루비는 부르기 편하다고 풀인 것이고, 집장은 신사숙녀들이 모인 공식 자리에서는 '루트비히(진) 비트겐슈타인'이다.

연남동 광장에 은둔하는 현대의 수도승 진중권은 작업할 때 3일씩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때로 이도 안 튀는다는데, 이 고독한 학문의 길에 루비는 유일한 친구이자 영혼의 동반자가 돼 준다.

진중권이 최근 펴낸 인문교양서 '고로 나는 존재하는 고양이'는 루비가 구술(?)하고 그가 받아 적어 펴낸 책이다.

낡은 인간중심주의 집사 문화를 버리고 새롭게 '고양이중심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펴낸 책이다.

고양이에 관세기부터 현대, 그리고 동서양을 아우르며 고양이에 관한 역사, 문화, 철학에서의 흥미로운 이야기 거리가 많이 펼쳐진다.

진중권은 "이를 통해 전국의 집사들은 냥이와 사는 지금의 삶이 매순간 각별한 철학적 사건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아직 간택당하지 못한 이들은 고양이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리라"라고 말했다.

"초보 집사들은 자기들이 우리를 데려왔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우리가 좀 지내다보면 슬슬 너희가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외려 우리에게 '간택'당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할 거야. 다시 말해 우리를 데려온 것이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고양이의 어떤 영적 힘에 의해 미리 결정된 사건, 그리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도록 운명 지워진 사건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지. 바로 그때 집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집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고양이중심주의 선언' 중)라고 루비가 말했다.

\*\*336쪽, 1만8,000원, 천년의상상 /뉴스

## 전북도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행사 개최

무주 안성 낙화놀이 · 진안고원형 흥기장 등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인증서 교부 행사가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지난 13일 열렸다.

이날 자리에선 새롭게 전북도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로 인정된 전북겨루기 태권도(도무형 제55호), 무주 안성낙화놀이(도무형 제56호) 두문리 낙화놀이보존회, 진안고원형 흥기장(도무형 제57호) 이현배, 민속목조각장(도무형 제58호) 김종연, 수간춤(도무형 제59호) 신관철, 색시장(도무형 제60호) 김해미자, 지승장 김선애(도무형 제61호), 판소리(도무형 제2호) 김소영, 목가구(도무형 제19호) 선동철, 지장(도무형 제35호) 김일수 등 보유자 및 보유단체들이 인증서를 교부 받았다.



지난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와 새롭게 전북도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로 인정된 10명의 신규 보유자 및 보유단체 관계자와 가족, 동료장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인증서 교부 행사를 가졌다.

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도청 관계자는 "이로써 전북도는 98건(국11, 도 87)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가 있는 곳이 됐다"면서 "보유자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전승을 보장하기 위해 2002년부터 70만원

으로 동결됐던 전승활동비를 2015년부터 80만원으로 인상했고 올해는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이를 국가지정문화재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도는 무형문화재 활성화와 판로 개척을 위해 각종 전시회, 박람회 등을 통

해 무형문화재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따라보며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1월 16일>



#### ▷쥐띠

48년생: 뜻밖의 막힘으로 인해 근심이 생길 운.  
60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말과 행동에 주의할 운.  
72년생: 혼자 판단하여 행동하는 일은 삼가고 타인과의 화합에 신경써야 하는 운.  
84년생: 다른 사람의 입장과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운이다.



#### ▷소띠

4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민하고 처신하는 것이 좋겠다.  
61년생: 새로운 방식에 대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73년생: 머물러 있는 것보다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은 운이다.  
85년생: 지나치게 이성적인 것에 치중하지 말라.



#### ▷호랑이띠

50년생: 늦게 움직이면 놓치게 된다.  
62년생: 눈앞의 것을 따르기는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씩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정신적, 육체적 소모가 심한 운.  
86년생: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삼가라.



#### ▷토끼띠

51년생: 지나친 욕심은 실망만 가져오게 되니 마음을 비우고 때를 기다려라.  
6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경쟁자가 나타난다.  
75년생: 계획을 변경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87년생: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좋은 때가 아니다.



#### ▷용띠

52년생: 편만한 운이니 하고자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64년생: 주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76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 무리는 금물이다.  
88년생: 편법을 쓰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 ▷말띠

53년생: 좋은 운세이니 미루지 말고 행동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  
65년생: 타인에게 베풀면 더욱 돌아오는 운이다.  
77년생: 처음에는 힘드나 이겨내면 노고에 대한 보답이 있는 운이다.  
89년생: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 운이다.



#### ▷말뚝띠

5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많으니 때를 기다리며 내실을 다져라.  
66년생: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어라.  
78년생: 사물로 인해 힘드니 일이 발생하니 사물을 골라 상대해야 할 것.  
90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니 마음을 비우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



#### ▷양띠

55년생: 기쁜 것에 기대해봤자 결실을 맺지 못한다.  
67년생: 사소한 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작은 일에 더 신경써라.  
79년생: 외부로 확장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운이다.  
91년생: 금전관리에 주의하고 중요한 물건은 가지고 다니지 마라.



#### ▷염소띠

56년생: 뜻밖의 귀인으로 인해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68년생: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80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면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이다.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능력이 인정받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운이다.



#### ▷뱀띠

57년생: 금전거래는 삼가라. 상대가 처음과 나중의 행동이 다를 것이다.  
69년생: 이성이나 친구 사이에 실각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81년생: 순간의 감정으로 움직이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93년생: 원형을 삼가고 일찍 귀가하는 것이 틀이 없겠다.



#### ▷개띠

46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실이 있으며 기쁜 일이 생기는 운이다.  
58년생: 사람들과의 모임도 길하고 금전운도 좋은 운.  
70년생: 외부적으로 구설, 시비, 실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2년생: 처음에 손해 보던 후에 얻게 되니 긍정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 ▷돼지띠

47년생: 사소한 일에도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운이니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59년생: 과음, 과식은 삼가라.  
71년생: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운이다.  
83년생: 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불리하니 차분하게 생각하라.